

재개발지역 '어깨' 활보...경찰 뒷집에 주민 불안

계림2구역 시공사 변경 놓고 건설사·현 조합 40명씩 동원 4~5명 몰려다니며 신경전...경찰 '폭력없어 주의 조치만'

광주시 동구 계림동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재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재개발조합 측과 시공사 측이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양측에서 동원된 직원들은 80명 가량으로, 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3~5명씩 짝을 지어 동네골목을 몰려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위압감과 공포감을 주고 있다.

25일 동구 계림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건강한 남성들이 3~5명씩 무리를 지어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들은 재개발조합 측과 시공사인 A건설업체 측이 각각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이다.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재선정을 앞두고 양측이 서로 견제하기 위해 용역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전 조합장 B(53)씨가 뇌물수수로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등의 대가로 A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1억원의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혐의를 인정해 B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B씨의 뇌물수수가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교체했다. 새로 뽑힌 조합장 측은 뇌물을 건넨 A건설업체에 시공사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달 17일 임시총회를 열어 A건설업체의 계약해지안을 통과시키고, 시공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업체 4곳 중 1곳을 조합원 투

표를 거쳐 시공사로 선정할 방침이다.

계림2구역은 두산위브아파트와 광주교육대 사이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총면적 8만6661㎡에 171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A건설업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급기야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시공사 해지 통보를 받은 A건설업체는 '홍보요원'이라며 용역회사 직원들을 고용했고, 조합 측은 '감시·경호요원'이라며 용역회사 직원을 고용해 맞대응하고 있다.

양측은 재개발사업 이권이 걸린 탓에 자주 충돌하고 있다. 경찰이 하루 2~3차례 출동할 정도다. 실제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계림동 로얄맨션 앞에서는 건강한 남성 17명이 대치했다. A건설업체 측 10명과 조합측 7명이었다. 이들은 서로의 활동을 막기 위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했다. 주변의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곧이어 순찰차 2대와 함께 지역경찰 4명, 동부경찰서 강력팀 형사 4명이 출동했다.

계림동 주민 C(여·50)씨는 "TV·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다. 덩치 큰 남자들이 너댓명씩 몰려다니 무섭다"며 "머칠 전에는 마을 정자에 상의를 걸어올린 채 드러누워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용한 동네가 강패소굴처럼 변했다"고 말했다.

주민 D(65)씨는 "지난 주말께부터 갑자기 동네에 불량배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있



광주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재선정을 놓고 조합 측과 시공사 A건설업체 측이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들이 3~5명씩 사업지구를 몰려다니며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독자 제공>

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이나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 동네를 얼마나 이상하게 볼지 걱정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주민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에도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치안을 유지하는게 지역경찰의 임무인데 뒷집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F(35)씨는 "경찰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가동대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하루에 2~3차례 신고가 들어온다"며 "하지만 위력만 과시할뿐 물리적 충돌이 없어 주의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배수구에 빠진 원앙가족 광주북부소방 구조대 구조



나무에서 떨어져 배수구에 빠진 원앙가족이 119구조대에 의해 10분 만에 구조됐다.

25일 광주북부소방에 따르면 원앙가족은 이날 오전 11시에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매점 앞 1m 깊이 배수구에 빠진 채 학교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원앙 14마리는 무사히 구조돼 복구정도로 인계됐다. 소방관계자는 "구조된 원앙들은 구정직원에 의해 전남대학교 용지에 방생 됐다"고 말했다.

한편, 원앙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관심대상종(LC)으로 분류돼 있으며 기러기목 오리과에 속한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교육부, 조선대 이사 추천 내달로 연기

갈등 국면 장기화 조짐

조선대가 차기 이사회 개편을 앞두고 이사회·대학 구성원 간 대립·갈등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 맞춰 개방이사 후보자 6명을 추천기로 했다가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 했다. 교육부는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결정기로 하면서 후보 추천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선대는 지난달 89차 이사회를 열고 교육

부에 개방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방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이사 7명(정원 9명, 현 이사 7명)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 상태로,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명의 개방이사 선임 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이사회는 이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5명을 추천했지만 대자협은 '중립적 추천위원회'로 불 수 없고 구경영전직 이사에 편중된 추천이라며 '개방이사 추천권'을 위임해줄 것을 이사회에 요구하며 맞서왔다. /김지율기자 dok2000@

실종된 봄...주말 한낮 30도 초여름 더위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주말인 28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8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 등 광주·전남지역은 당분간 최고기온이 평년(낮 최고 23~28도)보다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26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아침 최저기온은 9~15도, 낮 최고기온은 22~25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28일에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으며 28일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여름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25일부터 당분간 해수면이 상승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니, 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

달빛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뜻하고, '소나기'는 소통 + 나눔 + 기쁨을 표현한 함축어로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는 대구와 광주의 젊은이들이 만나 '소통하고 나누는 기쁨'을 얻는 화합의 행사입니다.

달빛나눔콘서트 가수 여우별밴드

2017. 6. 10 SAT - 6. 11 SUN
광주신양파크호텔

6월 10일(토)	part1. 달빛소통	14:00~17:00	프린지페스티벌 / ACC관람
	part2. 달빛나눔	19:00~22:00	멘토특강 / 공감콘서트
6월 11일(일)	part3. 달빛기쁨	09:00~15:00	빛고을 문화 투어

멘토특강 구글러 김태원 (구글 상무)

달빛소나기 광주지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 지역 문화예술인 및 문화에 관심 많은 열정적인 광주 청년(20~30대)
- 참가시간 : 2017. 6. 10(토) 18:00~22:00
- 모집인원 : 선착순 80명
- 참가방법 : 이메일 접수 saup@kwangju.co.kr
- 모집기간 : 2017. 6. 2(금)까지
- 참가비 : 없음(식사/기념품 제공)
-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주최·주관 광주일보 영남일보 주관 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대구광역시 Daegu City